

장흥서 전국 첫 '귀어 엑스포' 열린다

전남도, 24일 통합의학컨벤션 센터...어촌계·도시민 교류 서울·경기 등 전국 100여명 초청...어촌 투어·체험 기회 등

전남의 깨끗한 바다에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어촌계가 참여하는 귀어 엑스포가 전국 최초로 장흥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18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4일 전국 최초로 귀어 스포츠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귀어 스포츠엑스포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직접 만나 상담하는 장이다. 특히 이번 스포츠엑스포는 전남 지역 어촌계가 직접 참여해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의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100

여명을 초청했다. 귀어인 유치에 적극적인 장흥 사금, 여수 안포 등 20곳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이들과 상담하게 된다. 상담장에는 귀어인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어촌을 찾아 성공한 귀어귀촌 담당자 등도 참석한다.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들이 정착해 살아갈 어촌공동체인 어촌계가 직접 도시민에게 자신들의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계 가입 조건, 빈집, 일자리 등 귀어귀촌 시 제공되는 어촌계 차원의 지원책도 소개한다. 또 귀어귀촌 의사를 밝힌 도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2일간 해당 어촌 투어를 하거나 12월에 1주일간 어

촌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용산역, 수서역에서 '전남 어촌에서 인생의 2막을 여세요'를 주제로 캠페인도 벌였다. 이와함께 귀어귀촌 희망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의 다양한 귀어귀촌 시책과 사업을 설명하는 홍보 자료와, 성공 귀어인 30명의 스토리를 담은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민 귀어귀촌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남도로부터 도시민 귀어귀촌사업을 위탁받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어촌계의 진인 장벽을 낮추기, 전남 어촌의 귀어귀촌 정보 구축, 귀어귀촌박람회 참가 등 귀어 의향단계부터 준비, 실행, 정착, 이후 불편 상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도시민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 귀어한 가구는 285가구(가구원 418명)로, 전국의 31%를 차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귀어가 어장을 고충에 8천 565ha 규모를 승인했다. 2019년 5월 전남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등 귀어귀촌 도시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가고 있다. 전남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보물창고이고, 전국 어촌계 2029곳 중 847곳이 자리할 정도로 다양한 어촌이 있다"며 "전남 어촌을 찾아 인생 2막을 여는 도시민들이 새로운 활력이 돼 전남 어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 정부 통일·분단 문제 잘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1년 더 기다려 보자"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참석

작가 조정래는 지난 17일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문제, 분단 문제는 매우 잘하고 있지만 경제문제는 1년 반 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1년 더 기다려 보자.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미흡함을 진단했다. 조 작가는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 문제는 잘 하고 있지만 경제 문제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 같은데 시간을 주자"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작가와 독자들의 대화, 필사본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 백일장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태백산맥문학관은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개관 이래 누적 관람객이 65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1986년 출간된 '태백산맥' (전 10권)은 850만 부가 팔렸으며 필사본이 34본이나 된다. 조 작가는 행사 전 간담회에서 '태백산맥'의 배경인 해방 직후와 오늘의 사회를 진단하는 등 작가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해방 직후는 국가를 만들



/연합뉴스 제공

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정당 300개가 난립할 만큼 극심한 혼란기였다. 지금은 많아야 정당이 5개 인פק으로 70년의 역사가 흘러가며 조직화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인간사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한 국민이 75%였는데 지금은 '나는 빈곤층'이라고 답한 국민이 47%다. 비정규직이 평균 42-48%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해경공 김씨" 트위터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지사 부인

경찰, 오늘 김혜경씨 檢 송치

경찰이 이른바 '해경공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하는 것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해경공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톡과 '해경공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이 지사측은 "경찰의 수사결과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20주년 참석 인사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8일 오전 금강산에서 열리는 '금강산 2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화진포휴게소에 집결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 77% 달성

조사료·콩 등 8266ha 해남군 1260ha 최다

전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목표 면적(1만 698ha)의 77%인 8266ha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다 실적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과 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된 품목은 조사료 4825ha(58%), 콩 등 두류

1216ha(15%), 기타 일반작물 2225ha(27%)다. 시군별로는 해남군이 1260ha로 가장 많고, 고흥 1090ha, 나주 482ha, 무안 464ha 순이었다. 논 타작물 재배로 올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15만 4970ha)이 전년보다 4% 줄었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라 쌀 총수입은 1조 84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3000평) 기준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이행점검까지 끝낸 농가에 대해서는 ha

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기타 일반작물 340만원 등 품목별 지원 사업비를 12월 중 지급한다. 전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확대 재배를 위해 도 자체 사업비로 10억원 등 총 36억 원을 확보해 8ha 이상 논 공재배면적에 공전용 수확기 10대를 공급했다. 또 지난해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올해도 사업에 참여하면 국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차액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내년에도 전남도 목표면적 1만 2720ha 달성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kg' 정의 130년 만에 개정...내년 5월부터 적용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kg)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다.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단위인 '암페어' (A), '켈빈' (K), '몰' (mol)에 대한 정의도 함께 개정됐다. 새 정의는 세계측정의 날인 내년 5월 20일부터 산업계 및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은 지난 16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SI) 기반단위 7개 중 4개 단위의 재정의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호성 표준연 박사는 "과학의 바탕은 '측정'이고, 측정의 기준이 '단위'라며 "이런 단위가 재정의됐다는 것은 과학기

술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변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껏 사용해온 4개 단위를 재정의기로 합의했다. 기량 킬로그램의 경우 1889년 백금(90%)과 이리듐(10%) 합금으로 만든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의 질량으로 이를 정의해 왔다. 그러나 약 130년이 지난 현재 원기의 질량이 50마이크로그램(㎍) 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응성이 낮은 백금이 라도 공기와 반응하거나 이물질이 묻는 등 시간이 흐르며 생기는 변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

(주)오천경매. 010-3605-5000

전국

임야/단독섬/무인도

바로합니다.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신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가족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이백에서 함께 하는 아이돌보기!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장 & 대다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 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육아후수 주의법

서른 육아에 후수 대신 힐링이 가능한 현대인 아내!

직장 가족 이웃

육아대디 지지법

이백의 육아에 관심, 격려, 응원하기

든든육아 동참법

문자 육아, 아이 안전 지원, 나무미리 작은 조부님 살리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1800㎡, 1105㎡ 평당 35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집 대지 149㎡ 2중주택 115㎡ 1억2천
- 서구 쌍촌동 2중 주택 105㎡ 새 주택 118㎡ 운전차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삼향읍 왕산리 4861㎡ 식당·창고·주택단지 적합 5억9천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장성 삼계면 상업지 601㎡ 투자에 양호 은행 1억 매도 3천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광산구 대산동 잡초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중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질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동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김정기이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CKD-330과 D086 병용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다기관, 제 3자 임상시험

● 임상시험 목적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

● 임상시험 방법

- 약 12~15주 동안 5회 방문
- CKD-330/D086/CKD-330/D086+D723군에 무작위배정되며, 활력징후, 신체/실험실/심전도 검사 등 시행

● 대상자 선정기준

- 1) 만 19세 이상의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진단 받았거나 투약 중인 경우
- 2) 4주 이상의 안정기를 거친 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250mg/dL 이하
- 3) 중증의 심질환, 중증의 뇌혈관 질환 등 제외기준에 해당 할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 불가

● 예측 가능한 부작용

- CKD-330: 두통, 말초부종, 혈중 중성지방 상승, 흉조 등
- D086: 코인두염, 고혈당증, 빈혈, 인 · 후두 통증 등
- D723: 어지럼, 오심, 호흡기감염 등 (이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음)

● 참여기관

- 서울/경기: 신촌세브란스병원, 김병원, 서울성모병원, 감평성심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양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지방: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콜센터 연락처 ☎ 080-890-1252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경우 진료, 검사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본 센터는 24시간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09:00~18:00에 운영합니다.